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5호 [주제 제 25388호] 주제 105 (2016)년 9월 1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략잠수함 성원들과 함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리만전동지, 리명철동지, 노광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주체조선의 해공적능력의 일대 바탕으로 되는 성공주의 성공, 승리주의 승리를 이룩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주신 특별감사를 받아안은데 이어 또다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회대의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물어번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러저울랐다.

참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걸으신 해무역강화의 길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진조와 탄도탄체작을 위해 10여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의논도 해주시며 희생적인

현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꽝그리 바쳐오시고도 그 모든 성공과 승리의 단상에 자기들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백절 불굴의 의지와 사생결단의 투정으로 젊은 기간에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인 해무력의 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진보를

이룩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 활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용위!》의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흰한 미소를 지으시고 격정에 겨워 김격의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들이 불굴의 정신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 시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지며 우리 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로케트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말거친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 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데해 같은 사랑과 믿음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맥두에서 창조된 연길 폭탄정신, 1950년대의 군자리 정신을 계승하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우리식의 다양한 전략적 공격수단들을 최고의 높이

에서, 최상의 수준에서 개발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통남산의 맹세

조선야너를 빛내리!

간고하고도 시원에 찬 조선혁명은 배운 한걸음 따라 참으로 멀리 전진하였다. 뒤돌아보면 그 걸음 전대미문의 시민의 풍랑이 물어들어도 주제와 동을 몰랐고 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었지만 덜려왔다는 승리자들의 자부와 금지만이 차지된다.

우리 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로정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절대인민의 위대한 행로이다.

남산의 주른 소나무를 바보시며 이 힘을 써우다 쓰러지면 대 이를 써워서라도 나라의 힘을 이득하고 하락 지원의 뜻을 새기신 김형적 선생님의 맹세,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큰뜻을 풀으시고 암흑강을 건너느라 조선이 죽임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차지신 포령나루터의 맹세,

고결한 맹세와 대물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남산에서 차지신 맹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한성화를 원대한 구상을 온 세상에 선보인 역사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병도 하여온 자진의 결, 선군의 결, 사회주의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 수령님의 혁명역사, 장군님의 선군혁명행도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할 철석의 맹세를 펼치기 위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막월하고 결출한 맹도는 지금은 세계의 깊증침이며 흥륭같은 경판을 불려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 한분의 불세출의 병장의 위대한 맹세에 의해 역사의 풍물을 채갈기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내 조국의 궁지들은 현실이다. 온 나라에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는 혁명장의 힘찬 발길을 음소리가 누리며 진갈하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못 잊을 추억의 산마루까지 꽂아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희망의 봄』에 나서신 첫발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냄새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대국현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푸른 숲의 설계임 소리에 만단사연이

끝없이 실려오고 악동하는 짙음으로

비악하는 내 조국을 아름赳 안아보게 하는 통남산!

주제 49(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서서 이곳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북한 모습

이 우려의 눈앞에 끊길게 어려운다.

역사의 그날 아침에는 기낮은 잡판목

들사이로 멀찌져 있는 주운 전데발우에

꽃빛을 활활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안왕

에 깊은 회의의 빛이 실려있다.

해방후 본청사건이 한창이면 나날

어버이수령님과 김경성의 높은

대질과 품성을 훤히 짐작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조국을 불폐

의 강국으로 뒀내이어 한 무정한

개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정도에 의하여 당시업

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사

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의 힘으로 부강

조국건설의 일대 양기가 절쳐졌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의 선보와

전두환체사상화, 전군주체사상화 강령의 제시,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한 창조와

전설의 전성기와 세계를 경단시킨 문학

예술혁명, 무역발승의 강국으로 자라난

조선인민의 풀성과 기상과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즈기

총봉된 어조로 학생들에게 조선혁명을

이름진 주인이 되어 수령님의 위엄을 대

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것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에 지난 우리의 승고한

대이라고 하시면서 절절한 당부...

위대한 해양의 나파 조선을 만대에

고 그 빛내이자, 이것은 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그이의 열화 같은 사상 감정은 시

『조선야 너를 빛내리!』로 터져흘렀고

노을을 불리는 통남산의 하늘가로 친하게

메아리쳤다.

아, 조선야 너를 빛내리!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을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조선은 세계에서 무

정치를 없고 어려운 적도 범할 끝을

가능한 강위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가능한 혁명의 신념과 의지로 세계에 높이

나타난 혁명의 힘으로 세계에 높이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그야말로 칼풀쳐 릴 정에하다.

미국과 피씨군부호전 팽들은 내외의 강한 반대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2일부터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미제침략군과 피씨군의 방대한 병력과 척진경비들은 물론 수십만명의 민간인들까지 주입된 이번 연습에는 우리 혁명의 속마루와 『전당침범』을 노린 『작전계획 50 1 5』가 적용된다.

로악도 하기 째 없는 북침해선판과 각본에 따라 강행되는 『율지 프리덤』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와 박근혜정부의 불길을 뿐만 아니라 되지 않는다는 편지는 편지를 보았다.

덴백한 것은 북침전쟁연습의 강행으로 북침판례가 최대화의 폭력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협이 극도로 증대되고 있다. 사실이다.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쟁의 불길을 기어이 터뜨려 『제도전권』의 암왕을 이루어보려는 흥악한 기도의 밤이라이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모험적인 북침해선판으로 이어가려는 것은 미국과 박근혜정부에게 주구하고 있는 범죄행동은 속마루이다.

내외호전팔들은 상투적수법 그대로 이번에도 저들이 빌려놓은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년예작』이니 뛰어나는파워의 외피를 풀어놓은 한편 연습임정과 『비도발적성격』을 통보하는 힘을 놓았다.

하지만 자동속의 송통을 감출수 없듯이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다. 호전팔들이 이번 연습에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 1 5』가 적용된다며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두 번의 힘중이다.

『맞춤형억제전략』은 북미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충발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한다는 배우 위험한 경쟁각분이다. 지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맞춤형억제전략』의 새 내용을 걸고 토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훈련들로 일관되고 있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강행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선망하다.

미국과 피씨들이 지난해에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이 지난해에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이번 『율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 1 5』에 따라 꾸며낸 『작전계획 50 1 5』의 풀자는 그 무렵 『총집을 바탕으로 적전결과를 최대화』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작전계획 50 1 5』는 주구하는 목적과 그 실행

수단, 수행방식으로 별 차별을 찾아보기 힘든 흥악무도한 북침전쟁각분이다.

미국과 피씨들은 올해의 『키 리졸브』, 『죽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 1 5』의 혁신학부인 『참수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한다.